

측두하악장애의 진단에서 Bone Scan의 유용성

부산대학교병원 내과, 구강내과

김인주* · 김용기 · 박준상 · 고명연

측두하악장애 (temporomandibular disorders)는 저작근, 측두하악관절 및 그와 관련된 구조물의 다양한 임상문제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질환으로 동통과 저작장애를 비롯한 악관절 기능장애 등을 유발하며 최근에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.

측두하악장애는 발병 원인에 따라 두개골과 하악의 장애, 관절장애 및 저작근 장애의 형태로 대별될 수 있고, 관절장애의 경우 관절원판변위에서 관절염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며 원인에 따른 정확한 진단은 치료 방향의 결정과 예후 판정에 중요하다.

본 연구에서는 관절장애에 의한 측두하악장애의 진단과 관절원판변위와 관절염에 의한 것의 감별에 있어서 골스캔의 유용성을 조사하고자 하였다.

대상은 관절원판변위군 13예, 관절염군 8예 및 대조군 8예였으며, 통상적 골스캔을 시행하여 두부의 양측면 영상을 구하고, 각각에서 측두하악관절 부위와 두정골에 같은 크기의 관심영역을 설정하여 계수를 측정하고, 측두하악관절계수/두정골계수의 비를 구하여 분석하였다.

대조군에서 측두하악관절/두정골 계수의 비는 우측은 3.53 ± 0.706 , 좌측은 3.444 ± 0.630 으로 좌우측 사이에 특별한 차이가 없었다.

관절원판변위군에서 이환측의 계수는 4.043 ± 1.153 , 비이환측의 계수는 3.512 ± 0.498 으로 대조군의 평균계수 3.487 ± 0.648 보다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.

관절염군에서는 이환측 계수 4.171 ± 1.168 , 비이환측 3.646 ± 0.842 로 역시 대조군에서 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.

좌우측의 측두하악관절/두정골 계수비의 차이의 절대값은 대조군에서 0.168 ± 0.104 , 관절원판변위군에서 0.449 ± 0.365 , 관절염군에서 1.815 ± 1.863 으로, 관절염군에서 유의하게 증가되어 있었다. ($p < 0.01$)

이상으로 관절장애에 의한 측두하악관절장애 환자의 진단 및 관절원판변위와 관절염의 감별에 있어 골스캔의 유용성이 제시되었다.